

8/6/17

설교 제목: 사랑의 고백 (아가서 1 장)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아가서 1:1-17

- (아 1:1) 솔로몬의 아가라 **절관주** 왕상 4:32
- (아 1:2)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 (아 1:3)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절관주** 고후 11:2
- (아 1:4)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절관주** 롬 8:39
- (아 1:5)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은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 (아 1:6)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 (아 1:7)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 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 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절관주** 시 23:2
- (아 1:8)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절관주** 아 5:9, 아 6:1
- (아 1:9)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 (아 1:10) 네 두 뺨은 땅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절관주** 겔 16:11
- (아 1:11)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 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 (아 1:12)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절관주** 막 14:3
- (아 1:13)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 (아 1:14)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 (아 1:15)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 (아 1:16)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절관주** 아 4:1
- (아 1:17)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서까래로구나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쓴 연가입니다.

솔로몬 왕과 포도원에서 일하는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의 구혼과 결혼 그리고 결혼 생활의 기쁨과 아픔을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마치 연극 극본과 같습니다.

왕(솔로몬 왕), 신부(술람미 여인), 무리들(예루살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왕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왕은 술람미 여인을 '내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술람미는 갈릴리 바다의 남서쪽에 위치한 잇사갈 지파의 성읍이었던 수넴 지역을 말합니다.

아가서는 교회 내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책인데 그 이유가 해석하기에 난해해서 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남녀 간의 사랑이 뜨겁게 표현되어 있어 거룩한 교회 내에서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부부 간 또는 연인 간의 성과 사랑은 성결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그렇다 할 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성에 관해 터부시 하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 책의 저자 솔로몬은 이 책을 노래 중의 최고의 노래 'song of songs'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장에서 5장 1절까지로 사랑에 빠짐과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말합니다.

둘째 부분은 5장 2절에서 끝까지로 사랑 안에서의 고민, 성장, 그리고 성숙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책에서 솔로몬이 비유로 지칭한 술람미 여인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관해서는 몇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말년에 얻은 부인 아비삭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다윗은 140 명의 처첩을 거느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말년에 수발을 들라고 수넴에서 데려온 아비삭은 매우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고대 동양의 관례에 따라 아비삭이 솔로몬의 후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리 수넴 여인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1000 여명이나 되는 처첩을 거느린 솔로몬이 어떻게 솔람미 여인 하나만이 자신의 신부인 양 노래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솔로몬 왕은 대부분 사랑보다는 정치적인 정략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정략이 배제된 순수한 사랑으로 맺어진 이 솔람미 여인에게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 왕의 사랑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위까지 오른 솔로몬 자신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뺏어 아내로 취한 후 그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다윗은 충신이었던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동안 그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숨기고자 다윗은 계락을 짜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때 임신하여 태어난 아들을 죽이십니다.

솔로몬은 그 아들이 죽은 후 태어난 아들입니다.

돌이켜 보면 솔로몬의 탄생이 있기까지 다윗과 밧세바의 간통이라는 죄와 두 명의 무고한 죽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이스라엘 왕으로서나 거의 흠없이 살았던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자식은 자신의 죄악을 떠올리게 하는 아킬레스 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솔로몬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으며 솔로몬은 거기에 보답이라도 하듯 왕위에 올라 나라를 지혜롭게 통치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많은 여인들 중에 끼지 못하고 포도원을 돌보느라 햇빛에 그을려 검은 피부를 가진 솔람미 여인의 모습은 왕실 내에서 다른 형제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열등 의식을 가지며 자랐던 솔로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왕이 그런 모든 허물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솔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과 같이 다윗 왕은 밧세바와 솔로몬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유대인들은 왕과 솔람미 여인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로 봅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로 보는 견해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 것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 많고 허물 많은 죄인인 우리를 솔람미 여인을 사랑하듯 사랑하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가서는 이 네 가지 견해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라도 이 시간은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네 번째 견해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해 나갈 것입니다.

(아 1:1)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이 저자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3000 개, 노래를 1005 개를 썼다고 열왕기상에 말하고 있습니다.

(왕상 4:32) 그가 잠언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다섯 편이며

아가서는 그 중 일부일 것입니다.

(아 1:2)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문맥으로 보아 신랑이 신부를 맞으려고 신부의 마을 어귀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애태우며 신부가 신랑에게 입맞추기 원한다고 고백해 버립니다.

입맞춤은 가장 뜨거운 사랑의 표시인 동시에 최고의 존경과 신뢰를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아 1:3)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주님의 몸은 성령으로 충만하시며 그의 거룩함과 사랑과 온유는 아름다운 향기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 세상에 향유와 같이 부어졌습니다.

신랑의 이름의 향기 때문에 처녀들이 그를 사랑하듯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향기로 인해 그를 사모합니다.

(아 1:4)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우리’를 ‘나’로 바꾸면 뜻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부 자신을 포함하여 성도 전체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는 왕과의 친밀한 교제 즉 하나님과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 가리라’는 성도는 주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며 또 주를 따라 달려 가겠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 1:5)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은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왕궁에 거하는 피부가 하얀 여인들을 바라 보면서 솔람미 여인은 자신의 피부가 검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자신은 왕에게 선택된 왕의 사랑을 받는 자, 왕으로부터 아름다움을 인정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서 당당하게 태어납니다.

신랑에게 사랑받는 여인의 당당함입니다.

(아 1:6)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솔람미 여인은 자신이 본래 검은 피부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이 흠이 있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범한 고로 흠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아름답고 당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 1:7)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 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 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솔람미 여인은 애타게 왕을 만나기 원하며 왕이 있는 곳을 묻습니다.

'양 치는 곳'은 양들의 양식이 있는 곳입니다.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은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인 정오에 다시 말해 환난의 시간에 쉴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네 친구의 양 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는 거짓 지도자 곁에서는 주님을 뵈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네 친구'는 주를 안다고 하는 거짓 지도자를 가리키며 '네 친구의 양 떼'는 거짓 교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거짓 종과 거짓 교회들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거기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참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 바른 말씀의 양식을 먹고 주 안에서 참 기쁨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 1:8)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왕은 신부에게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 줍니다.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는 것입니다.

앞서 간 진실한 성도들의 발자취를 따라 배우고 신실한 목자와 교회 안에 속하여 어리고 연약한 신자들을 잘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 1:9)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아 1:10)   네 두 뺨은 땅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아 1:11)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 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은 신부를 바로의 준마에 비견합니다.

당시 가장 훌륭한 말은 애굽산이었는데 애굽 왕 바로가 타는 말이라면 얼마나 잘 훈련된 훌륭한 말이겠나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교회를 준마에 비유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주 안에서 잘 훈련시키고 길들여 영적 전쟁에서 준마로 쓰시기 원하십니다.

‘네 두 뺨은 땅은 머리로 네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에서 땅은 머리, 구슬 꿰미는 우리의 선한 행실과 덕을 지칭합니다.

왕은 신부를 위해 금 사슬에 은을 박아 만든 장식물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교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회에게 중생의 복과 양자되는 복, 또 성령을 부여 주셨으며 장차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아 1:12)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아 1:13)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아 1:14)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나도 기름’은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막 14:3)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고벨화’는 향기가 좋은 흰색의 포도 송이처럼 생긴 꽃이 피는 떨기 나무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얼마나 향기로운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로운 존재인지를 말해 줍니다.

(아 1:15)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주께서 교회인 우리를 얼마나 예쁘게 보고 계시는지 말해 줍니다.

우리 각자는 흠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어여뵈여겨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더 희고 깨끗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로 간주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1:16)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아 1:17)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서까래로구나

‘화창하다’는 ‘사랑스럽다’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향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어여쁘다고 합니다.

그렇지라도 실상 아름다운 사람은 신랑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교회인 우리를 어여뵈여기시지만 실상 아름다운 자는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에서 침상은 하나님과 성도의 친밀한 교제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한 교제를 가리킵니다.

침상이 푸르다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가 신선하고 생명력이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에게 힘과 기쁨을 주고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서까래로구나’에서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튼튼하고 향기롭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만큼 완전하고 아름다우신 분은 없으십니다.

이렇게 완전하고 아름다우신 분이 흠 많고 보잘 것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어여쁘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십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듣는 우리는 기쁨으로 가슴이 북받쳐 오르고 그 분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 설렘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해지기를 기도합니다.